

外書(洋書) 輸入 販賣의 現況

崔 喜 秉

(一)

近40年間이나 外國文化와 絕緣狀態에 놓여 있던 우리나라 知識人들은 8·15解放을 契機로 先進西歐의 政治, 經濟, 學術面의 새로운 事實과 理論을 體得하기 爲하여 外國書籍에 對한 關心과 求得熱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當時의 우리나라事情은 이와같은 學究熱, 讀書意慾에 對한 뒷바침이 充分的 施設과 準備가 되어있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終戰後 軍政當局은 戰後處理에 바빠서 우리나라 讀者들에게 外國書籍이나 雜誌같은 것을 供給하여주는 일 따위는 도라불나위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의 우리나라 外書業界는 敗戰後 日本사람들이 버리고간 藏書와 各處에 散在하는 古本書店에서 取扱하고 있던 날거빠진 古本以外에는 美軍PX을 通하여 흘러나오는 探偵小說을 爲主로한 小冊子들을 求景할 수 있었을뿐 새로운 學術書籍은 求할 길이 없었다.

政府樹立後에는 韓國商品을 輸出해서 獲得한 外貨로서 外國商品을 사드려 올수 있는 制度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外貨(輸出費)를 가지고는 輸入해다가 많은 利益이 保障되는 商品이 許多한데 利가 없는—利가 없다가 보다는도 輸出費時

勢로 드러온 冊은 原價로 준다해도 讀者의 購買力이 許諾치않는 形便으로써 外國書籍을 輸入해다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日本書籍에 關해서는 解放直後에는 一般이 앞으로는 日本書籍을 읽지 않아도 좋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이라 얼마동안은 日本書籍을 輸入한다는데 對하여서는 讀者나 業者나 거의 關心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對日感情이 漸次 緩和되면서 오랫동안 日本語教育을 받아 온 學校先生이나 一般讀者들은 亦是 日本書籍이 아니고는 그들의 圖書館을 채우고 教授資料를 얻을 길이 없어 日本書籍에서 關心이 멀어진지 不過 4,5年 만에 다시금 日書을 渴求하게 되었다. 그래서 日書의 輸入이 正常化하기 까지에는 間或 日本을 往來하는 旅客, 美軍人, 船員 등이 携帶品으로 가져오는 少量의 日本書籍이 市中에서 販賣하게 되어 相當한 人氣를 集中한 때가 있었다. 이러한 中에 日本書籍이 正式로 輸入許可를 얻어 드러오기 始作한 것은 6·25事變直後인 1952年 釜山還都時의 일이었다. 이렇게 日書輸入의 길이 열림으로부터 그 去來가 漸次 活潑해져서 日書을 專門으로 取扱하는 書店들이 생기게 되고 서울還都後에는 더욱 그 需要가 增加하여가는 傾向을 示顯하였다.

日本册이 正式으로 輸入된지 3年後인 195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一般輸出費에 依하여 처음으로 洋書가 輸入되었고 其後 政府非이 放出되자 洋書는 그 公賣非로서 輸入이 可能하게 되어 既往부터 洋書의 輸入에 關心을 가지고 있던 몇몇 商社에서 이에 着手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洋書의 需要는 極히 制限되어 있고 또 그 輸入에 所要되는 外貨의 獲得이 極히 困難하여 그 實績은 微微한 것이었다. 그러나 制限된 條件下에서 나마 洋書를 政府公賣非로 輸入할 수 있게된 事實만으로도 文化財로서의 洋書輸入의 促進을 要求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政府關係當局도 이에 對한 認識을 새로히 한 것으로 그간의 業者들의 努力에 對한 큰 所得이었다.

그러나 洋書輸入에 公賣非를 使用할 수 있었던 것도 暫時이고 1956年 2月以後 政府非의 公賣가 中止되자 또다시 輸出費에 依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同年2월에 洋書輸入業者와 小賣業者들은 當面한 外貨難을 打開하기 爲하여 會合討議한 끝에 業者相互間的 協助機關으로서 外書協會를 組織하고 (1) 政府非의 配定 (2) ICA資金의 使用 (3) 美國政府와의 IMG 契約締結의 3種中 그 어느 한가지로든지 或은 三者를 合하여서든지 間에 年間 60萬弗의 外貨를 海外圖書購入을 爲하여 配定하여 줄것을 關係當局에 要請하였다.

이와같은 外書協會의 建議는 文教部와 復興部의 後援을 얻어 建議3項中 ICA資金使用이 承認되어 1956年度 ICA資金中 20萬弗을 洋書輸入用으로 策定하고 同年 8月10日 韓銀外國部를 通하여 同資金 20萬弗의 公賣를 보게 되었다. 이로부

터 洋書輸入은 本格化하였고 同資金에 依한 書籍은 翌年 1957年3月頃 부터 續續入荷되어 때마침 新學年度를 마지하여 賣氣도 좋아 洋書業界는 한때 活氣를 띠었다.

最初의 ICA書籍非에 依한 輸入洋書의 生産國別로본 內譯은 大略 美國이 50% 英國이 35% 獨逸이 8% 佛蘭西册이 7% 등으로 20萬弗의 約切半을 美國册이 차지하였고 輸入總卷數는 5萬6千餘卷에 達하였다. 이와같은 大量의 洋書가 한번에 國內에 드러와 需要者에게 供給되기는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外書輸入史上 特記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로부터 ICA資金에 依한 洋書輸入은 1960년까지 順調로히 繼續되었다. 初年度의 20萬弗 配定으로 始作된 同資金은 翌年인 1957年度에 20萬弗, 1958년에 40萬弗 1959년에 40萬弗 1960년에는 50萬弗이 配定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그 額數는 增加되었고 每般公賣가 있을때 마다 應札商社의 數도 늘어만가고 1958年 3월에 있었던 20萬弗 公賣時에는 無慮 17個商社가 應札하여 最高350圓의 競合稅을 부치는 盛況을 이루었다.

이와같이 ICA書籍非의 人氣가 高潮된 理由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過去 輸出費에 依하여 輸入된 洋書에 比하여 그 價格이 近半價에 가까운 廉價로 購入할 수 있고 둘째 外國語學熱이 高潮됨에 따라 洋書의 需要가 激增하여 販賣가 容易하였고 셋째로 當時 1弗當 500圓의 政府公定換率로 輸入하여 1弗當 800圓으로 販賣되었음으로 充分한 利益이 保障되었고 넷째 少額의 資本을 갖이고도 外資를 購入하여 輸入行爲를 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ICA書籍弗이 처음 配定된 1956年에서 1960年에 이르는 4,5年間 實로 150餘萬弗이라는 莫大한 金額이 純全히 洋書輸入을 爲하여 消盡되었고 光化門을 中心으로한 서울市內에서 만도 洋書を 專門으로 取扱販賣하는 書店이 12,3店舖에 達하였고 그 많은 書店마다 새로 入荷된 歐美各國의 新刊들이 그득히 차있었다.

이렇게 洋書街가 活氣을 띤것도 暫時이고 1960年 50萬弗公賣를 最後로 ICA書籍弗의 配定이 中斷되고 雪上加霜으로 政府의 單一換率 實施에 따르는 1弗當 1,300圓의 公定換率의 大幅引上, 그리고 商工部의 貿易業者 資格制限을 爲한 輸入業者의 登錄實施 등으로 洋書業界는 다시 沈滯하기 始作하였다. 그리하여 現在에 이르러서는 自己商社名義로 洋書を 輸入할 수 있는 專門業者는 單 2社가 남아 있을뿐 過去의 많은 洋書販賣에 從事하던 사람들은 單一換率로 變更되면서 부터 재빠르게 日書로 轉向하여 洋書業者가 줄어드는 反面에 日書業者는 急激히 많아져 現在로서는 外國書籍하면 日本書籍 할 程度로 日書가 市中에 汎濫하고 있다.

以上은 解放後 現在까지 外國書籍 特히 洋書가 어떻게 輸入되었나 하는 經緯이었다. 如上과 같은 多難한 經緯를 거쳐 國內에 輸入된 洋書가 어떻게 需要者들에게 供給되었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二)

洋書의 需要者는 勿論 外國語를 解讀할 수 있는 學生, 教師 그리고 一般社會人 등의 個人購讀者들과 大學圖書館, 政府研究機關, 文化團體, 特殊圖書館 등을 들수 있는데 近來數年間의 需要者別로 본 洋書의

販賣狀況을 보면 먼저 學生層에 있어서는 그 需要가 漸次 높아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全體學生數에 比하여 보면 極히 少數의 學生이 洋書에 依存하고 간신히 學校에서 教科書로 使用되는 冊을 購入하는데도 힘이 드는 形便이다. 그러나 여기서 特記해 둘것은 나날이 漸高되어 가는 語學實力과 教科目的 歐美式編成에 따라 앞으로의 學生層 需要는 增加될것이 豫想되며 現在 輸入되고 있는 洋書도 그 量이나 金額面에 있어서 學生用의 것이 全體의 5割可量을 차지하고 賣買되는 書籍의 內容을 보면 人文系의 英文科系統이 數量으로 보아 斷然 首位로 約4割을 차지하고 다음이 理工系의 化學, 物理를 爲始로한 工科書籍이 그다음을 차지하여 數量보다도 그 額數로 約2割程度이고 醫科系統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政治, 法律, 經濟, 哲學, 歷史, 參考圖書 등은 그 科目을 專攻하는 學生의 數로 보아 大端히 僅少한 量이 販賣되고 있어 아직도 外國語를(特히 英語) 專攻하는 學生以外에는 外國語의 實力이 洋書에 依存할 程度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그리고 學生層이 購入하는 洋書의 8割以上이 「텍스트북」이고 研究資料나 教義書籍은 廉價本인 小說의 僅少한 量이 販賣되고 있다.

다음은 大學教授, 教師, 研究機關에 從事하는 一般社會人의 洋書購入狀況은 想像外로 僅少한것이다. 이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原因은 經濟的인 原因일 것이다. 固定된 薄俸으로 한卷에 普通 萬餘圓씩이나되는 洋書を 購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많이 外書를 보고 研究해야 할 이層의 사람들이 書店과 멀게

된다는 現實에 對하여는 우리나라 將來를 爲하여 크게 念慮되는 點이며 最少限 大學教授에게는 研究에 必要한 圖書費程度라도 補助하는 國家的인 施策이 要請되는 바이다.

大學圖書館의 境遇를 보면 文教部에서 大學設置基準令을 施行한 以後부터는 各大學마다 相當한 規模의 圖書館을 新築하고 外觀上으로는 제법 큰 圖書館을 갖고 있으나 圖書購入狀況을 보면 그 內容까지 具備하려면 앞으로도 相當한 豫算과 時日이 要할것 같다. 特히 여기서 關心事는 現在까지도 大概의 大學圖書館에서 그 豫算의 太半을 日本書籍購入에 充當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 原因은 아직까지도 많은 教授들이 日本冊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과 日本書籍이 洋書에 比하여 값이 싸다는데 있을 것이나, 大學圖書館이 學生本位의 圖書館이 되려면 學皆가 不足한 豫算의 太半을 學生들이 利用할 수 없는 日本冊을 購入하는 傾向은 早速히 是正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官公署, 機關團體의 納本狀況을 보면 豫算面に 나타난 圖書購入費는 相當한 額數에 達하고 있으나 購入面에서 볼 때 極히 少額의 書籍이 納品되고 있는 實情으로 特히 洋書分野에서는 理工系의 技術書籍이 第一 많이 納品되고 있으며 納品の 8割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一言하여 들것은 納品에 있어서 그 手續의 複雜性이다. 政府에서 施行하고 있는 財政法대로 納品을 하려면 購入하는 側이나 販賣하는 側이 形式的인 手續 때문에 不少한 時間과 努力과 金錢上의 損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點은 書籍이 다른 商品과 달라 그 品目과 種類의 多岐性에

비추어 價格의 調整은 別途로 하더라도 任意로 隨時에 사고 팔수 있는 例外規定이 있으면 좋겠다.

以上是 需要面으로 본 供給狀況이었다. 끝으로 價格面으로 洋書의 販賣狀況을 보면 洋書가 貿易品으로서 輸入되기 始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近8年間 纒々 그 販路價格은 上昇만 繼續하여 왔다. 다른 商品은 需要供給에 따른 時勢의 變動으로 때로는 騰貴도하고 때로는 下落하는수도 있으나 洋書販賣의 境遇는 그 價格의 變動은 오로지 外貨時勢의 變動에만 隨從하였다. 따라서 輸出弗이나 政府弗로 少量의 洋書가 輸入되든 1957年 以前은 且置하고도 ICA書籍弗에 依하여 多量의 洋書가 輸入販賣되든 57年 3月以後 現在까지의 公定換率의 變動과 洋書市中價格의 變動만 보더라도 不過5年 동안에 1弗當500圓이든 것이 2次의 變動을 거쳐 現在는 弗當 1,300圓이라는 實로 2.6倍의 昂騰을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洋書의 市中價格도 始初 ICA書籍弗이 公定換率 弗當 500圓에 國債가 添付되어 原價 弗當510圓에 輸入할 수 있었든때 弗當 800圓에 販賣되는 것이 두번에 걸친 公定換率에 變動과 ICA書籍弗에 外換稅가 附加되는 등으로 그 原價의 變動에 따라 市中販賣價格도 弗當 900對에서 다시 1,100對, 1,300對, 1,500對의 順序로 오르지만 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價格昂騰은 그 需要量을 減少시키고 業者들도 洋書보다 利益이 훨씬 좋은 日書로 轉向하여 政府公定換率 1,300對1이 된後의 洋書業界는 沈滯一路를 걸고 있는 形便이다.

(筆者 汎文社 專務)